

# 한국 관련 보물 가이드

지금까지도 나라에는 한국과의 오랜 역사가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사 원

이카루가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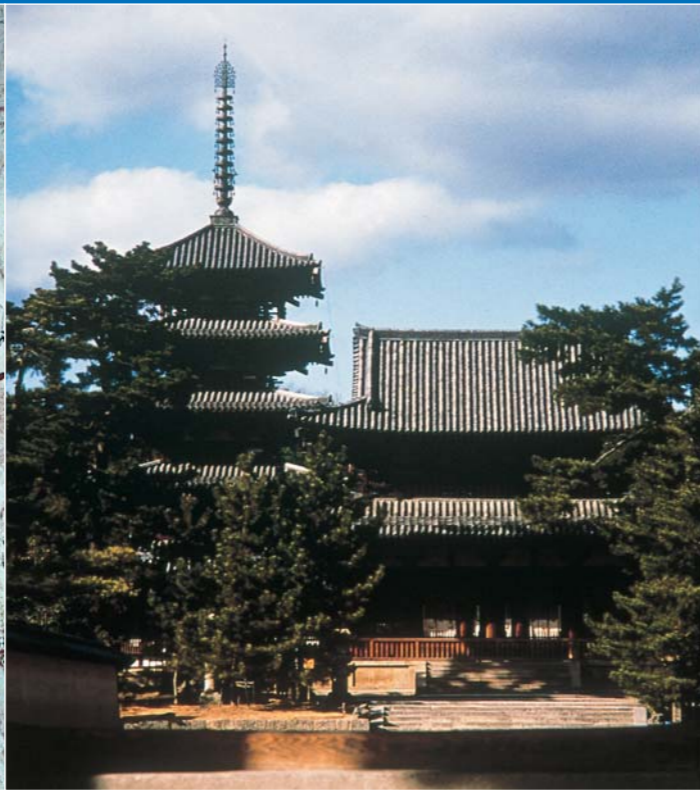
## 호류지 절

Horyuji Temple 法隆寺

세계 유산



금당 벽화



호류지 절 경내

### 한반도 도래인들이 건립에 커다란 역할을 한 세계 최고(最古)의 목조 건축물

호류지는 세계 최고(最古)의 목조 건축물로 1993년 일본에서 처음으로 세계문화유산에 등록되었습니다. 절 건립에는 한국의 도래인들이 가져온 기술이 도입되었기 때문에 이 절을 보고 한국의 절과 비슷하다고 느끼는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약 19만㎡의 경내에는 백제에서 도래한 불사(佛師)가 만든 금당석가삼존상 등의 불상 외에 한국의 교과서에 담징이 그린 것으로 소개되고 있는 벽화도 안치되어 있습니다.

쇼토쿠 태자와 관련이 깊은 사원으로 알려져 있고 601년 쇼토쿠 태자가 이카루가 지역에 이카루가 궁을 짓고 그 부근에 호류지를 건립했다고 합니다. 창건에 대해서는 금당에 안치되어 있는 동조약사여래좌상의 광배에 요메이 천황이 자신의 병이 치유되기를 기원하며 가람 건립을 발원했으나 얼마 후 승하했기 때문에 요메이 천황의 유지를 받들어 스이코 천황과 쇼토쿠 태자가 607년에 불상과 절을 완성시켰다는 취지의 글이 적혀 있습니다. 경내는 금당과 오층탑을 중심으로 한 서원(西院)과 몽전(夢殿)을 중심으로 한 동원(東院)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이들 주변에는 많은 말사들이 있고 넓이 약 187,000㎡의 경내에는 아스카시대를 비롯한 각 시대의 건조물들이 자리하여 독특한 경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창건 당시의 가람들은 670년에 모두 소실되었지만, 이 가람들은 현재의 서원 가람 남동쪽에서 발굴되었고 탑과 금당이 남북으로 배치된 가람 배치로 와카쿠사 가람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또 쇼토쿠 태자가 지은 이카루가 궁 터로 알려진 호류지 동원(東院)에서도 옛 건조물의 흔적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호류지 서원(西院)은 7세기 후반부터 8세기 초에 걸쳐 재건되었으며 서원 가람의 금당·오층탑·중문·회랑은 훌륭한 의장을 자랑하는 세계 최고(最古)의 목조 건조물입니다. 일본에는 8세기 이전에 건립된 역사적 목조 건조물이 28동 현존하고 있는데, 이 중 10동이 호류지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또 사원의 칠당가람이 모두 국보로 지정된 곳은 호

류지가 유일합니다. 보물류도 다수 전래되어 오고 있으며 국보·중요문화재로 지정된 것만도 약 190건, 수량으로는 약 2,300점에 이릅니다.

이와 같이 호류지 절은 1,400년에 이르는 전통을 오늘에 전하고 있으며 1993년에 호키지 절과 함께 '호류지 지역의 불교 건조물'로서 일본 최초로 세계문화유산에 등록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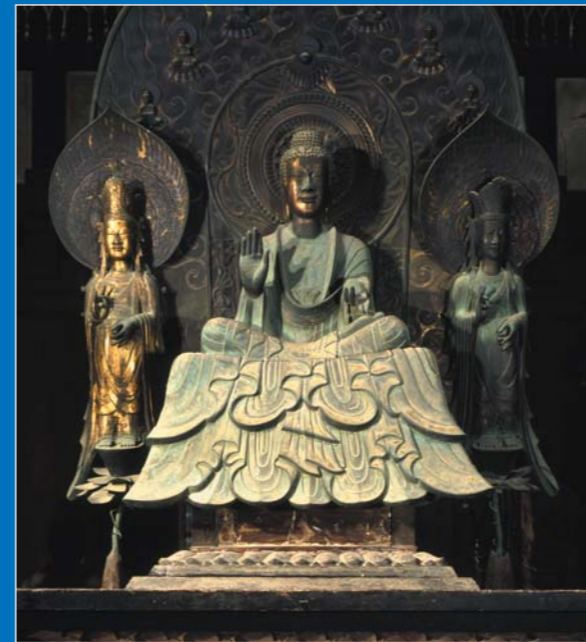
이 호류지의 건립에는 백제계 도래인 기술자들이 관련되어 있으며 일본의 불교미술을 대표하는 문화재 중에도 한반도 문화의 영향을 받은 것들이 많고 금당석가삼존상은 백제계 도래인인 구라쓰쿠리노토리(安作止利) 일파의 작품으로 알려져 있으며 사천왕상 중 광목천(廣目天)의 뒤쪽 면에는 도래인 아야노야마구치노아타이오구치(漢山口大口)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또 불상을 안치하는 다마무시(玉蟲, 비단벌레) 감실의 내벽에 그려진 그림은 고구려 벽화와도 상통하는 부분이 있고 아스카문화를 오늘에 전하는 국보·예술품을 다수 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교과서에 담징이 그린 것으로 소개되고 있는 금당 벽화도 안치되어 있습니다.

#### MORE

**유메도노(夢殿)**  
필각원당 안에는 쇼토쿠 태자의 모습을 띤 등신불(等身佛)로 전해지는 비불구세관음상이 안치되어 있습니다.

#### 금당석가삼존상

Shaka Triad in the Kondo Hall 金堂釈迦三尊像



석가삼존상은 금당의 수미단 중앙에 안치되어 있습니다. 이 불상은 불교가 백제에서 일본으로 전래된 후 처음으로 제작된 불상의 하나로 한반도에서 건너 온 구라쓰쿠리노토리(鞍作止利)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광배의 명문에 의하면 쇼토쿠 태자의 어머니인 아나호베노하시히토(穴穗部間人) 황녀가 승하하고 이듬해에는 쇼토쿠 태자도 병으로 쓰러졌기 때문에 623년에 황후와 왕자, 신하들이 발원하여 구라쓰쿠리노토리에게 등신불을 제작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이 시대의 불상 조각 양식은 다양합니다만, 그 중에서 주류를 이루는 것이 도리 양식이라고 불리는 구라쓰쿠리노토리를 포함한 불상 제작 기술자들의 작품입니다. 도리 양식의 불상은 '형태가 평면적이고 부조적인 표현으로 깊이가 없으며 정면 감상을 중시하고 있다.', '뚜렷하게 표현된 옷자락과 복식이 좌우 대칭을 이룬다.', '원통형의 가름한 얼굴에 아몬드 모양의 눈을 하고, 미소를 띤 입과 표정을 보여주고 있다.', '추상적으로 옷자락이 무릎까지 늘어져 있다.', '목이 원통형이고 길며 삼도(三道)가 표현되어 있지 않다.' 등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양식은 한반도의 고구려와 백제를 경유하여 일본에 전래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 백제관음상

Statues of Kudara Kannon 百濟觀音像



호류지에는 7세기의 오래된 불상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명한 것은 장신의 '백제관음상'입니다. 관음이란 범화경 등에 등장하는 보살의 이름으로 그 이름을 외우는 사람을 재난으로부터 구제하고 깨달음의 경지로 인도하는 존재입니다. 일본에서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관음 신앙이 무척 활발합니다. 이 불상은 통나무를 깎아 만든 것으로 호류지 절의 어디에 안치되어 있었는지는 확실치 않으며 현재는 보물전의 중앙에 백제관음만을 위한 방을 마련하여 안치해 놓고 있습니다. 오래되어 얼굴의 표정은 읽을 수 없지만 그 긴 수족과 기품 있는 모습으로 인기가 높습니다.

이 시대의 불상은 정면에서 바라본 모습을 중시한 평면적인 작품이 많지만 이 백제관음상은 오히려 옆에서 바라보는 모습도 충분히 배려하여 만들어졌으며 입체적이고 깊이가 있고 늘씬한 모습은 신비롭고 독특합니다. 백제관음상이 어디서 제작되었는지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으며, 현재는 일본 국내에서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백제관음이라는 이름은 당시 일본과 백제의 우호관계를 반영한 아름다운 호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660년에 백제는 당나라와 신라의 공격을 받고 멸망하였고, 일본에서 백제로 보낸 원군도 한국의 백마강 전투에서 패퇴하였습니다. 그 후 많은 백제의 왕족과 유신(遺臣)들이 일본으로 이주하였습니다. 백제의 마지막 국왕 의자왕의 왕자 선광왕의 자손들은 백제 왕씨라는 이름으로 일본 조정에서 귀족으로서의 지위를 차지합니다. 나라에서 교토로 수도를 옮긴 간무 천황의 어머니 다카노노니가사(高野新筥)도 백제 왕족의 자손입니다.

#### 이용 안내

나라현 이코마군 이카루가초 호류지산나이 1-1 +81-745-75-2555(호류지) 8:00~17:00(2/22~11/3), 8:00~16:30(11/4~2/21) 연중무휴 1,000엔 JR 호류지역에서 72번 버스를 타고 '호류지문마에'에서 하차하면 바로.  
 ■ 공개 정보/금당 벽화(금당)는 1967년부터 1968년에 걸쳐 복제된 작품이 일반 공개되고 있으며, 오리지널 작품은 1949년의 화재로 손상되었기 때문에 비공개.  
 석가삼존상(금당), 다마무시 감실(다이호조인)은 모두 일반 공개(배관료 필요).

#### 주변 가이드

Horinji Temple 法輪寺

#### 호린지 절

쇼토쿠 태자의 아들 야마시로노오에(山背大兄)왕이 건립했다는 설이 있는 호린지 절. 가람 배치가 호류지식이며, 호류지와 비슷한 막새기와 등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나라현 이코마군 이카루가초 미이 1570 +81-745-75-2686

호류지에서 도보 16분

